

INSIDER  
GUIDES  
from GoUSA

# 태평양 연안 음악기행

워싱턴주 - 오리건주 - 캘리포니아주 - 네바다주

# 태평양 연안 음악 기행

워싱턴주 시애틀 출발, 올림픽 국립공원 도착  
 워싱턴주 올림픽 국립공원 출발, 오리건주 포틀랜드 도착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발, 코어스 베이 도착  
 오리건주 코어스 베이 출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도착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출발, 캘리포니아 해안 도착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해안 출발, 로스앤젤레스 도착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출발, 팜스프링스 도착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출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도착

2시간 22분/178km  
 2시간 48분/262km  
 4시간/356km  
 9시간 54분/1,020km  
 3시간 50분/373km  
 3시간 47분/325km  
 2시간 8분/172km  
 3시간 59분/373km





팝 문화 박물관

## 워싱턴주 시애틀

요즘 사람들이 즐겨 따라 부르는 더 헤드 앤 더 하트(The Head and the Heart), 플릿 폭시스(Fleet Foxes), 맥클모어 앤 라이언 루이스(Macklemore & Ryan Lewis)의 노래가 있기 훨씬 전인 1960년대 후반, 지미 헨드릭스(Jimi Hendrix)는 완벽한 전자 기타 연주 실력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고, 이를 계기로 시애틀의 음악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시애틀은 1980년대 중반 그런지 뮤직(grunge music)이 유행하면서 유명세를 떨쳤고 너바나(Nirvana), 펄 잼(Pearl Jam), 사운드가든(Soundgarden) 및 앨리스 인 체인스(Alice in Chains)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줄여서 MoPop이라고 부르는 팝 문화 박물관(Museum of Pop Culture)을 방문해 대중문화, 특히 시애틀과 세계의 음악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물을 관람해보세요. 뮤지션들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되는 전설적인 장소도 많습니다. 역사적인 컬럼비아 시티 극장(Columbia City Theatre)을 방문해 오늘날 최고로 손

꼽히는 아티스트들을 만나보고 듀크 엘링턴(Duke Ellington), 엘라 피츠제럴드(Ella Fitzgerald) 및 레이 찰스(Ray Charles) 같은 거장이 1940년대 무대를 장악하던 재즈 시대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뉴모스(Neumos)와 쇼박스(The Showbox)의 공연 일정을 확인해 떠오르는 인디 음악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감상해보세요. 계획을 잘 세우면 범버슈트(Bumbershoot), 사스콰치(Sasquatch), 업스트림 뮤직 페스트+서밋(Upstream Music Fest + Summit) 및 노스웨스트 포크라이프(Northwest Folklife) 페스티벌에서 멋진 밴드들의 공연을 모두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지 스트리트 레코드(Easy Street Records)를 비롯해 레코드 가게가 몇 곳 있으니 시애틀을 떠나기 전에 LP를 구매해보세요.

숙박: 워싱턴주 시애틀

## 워싱턴주 시애틀 출발, 올림픽 국립공원 도착

●●●●● 2시간 22분/178km

음악이 흐르는 시애틀을 뒤로하고 이제 다양한 생태계를 아우르는 광활한 공원인 올림픽 국립공원(Olympic National Park)을 탐험하며 빙하가 덮인 올림픽 산맥(Olympic Mountains)부터 원시 열대우림, 크레센트호(Lake Crescent) 및 태평양의 풍경을 만끽해보세요. 올림픽 국립공원은 아웃도어 마니아라면 놓쳐서는 안 될 여행지로, 여러 날을 묵어가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숙박: 워싱턴주 올림픽 국립공원 주변

## 워싱턴주 올림픽 국립공원 출발, 오리건주 포틀랜드 도착

2시간 48분/262km

위대한 음악을 듣는 여정을 이어가며 이번에는 '미국 인디 록 음악의 메카' 포틀랜드로 향해 인디 록이 인기를 구가하는 현장을 느껴보세요. 포틀랜드 출신의 떠오르는 밴드로는 댄디 워홀스(The Dandy Warhols), 블리첸 트래퍼(Blitzen Trapper), 디셈버리스츠(The Decemberists) 및 신즈(The Shins) 등이 있습니다. 현지인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보려면 크리스탈 볼룸(Crystal Ballroom), 더그 퍼(Doug Fir) 및 로즈랜드 극장(The Roseland Theater)을 찾아주세요. 포틀랜드에는 크고 작은 레코드 가게가 여러 곳 있으며, 콘서트 인 더 파크(Concerts in the Park), 뮤직페스트NW(MusicFestNW) 및 PDX 팝 나우(PDX Pop Now)와 같이 음악을 주제로 이벤트와 축제가 다양하게 개최됩니다. 한편 소규모 양조장, 도심 속 푸드 트럭 및 윌라멧강(Willamette River) 연안으로 향해 포틀랜드의 또 다른 모습도 즐겨보세요. 클래식의 밤을 원하시나요? 오리건 심포니(Oregon Symphony) 또는 포틀랜드 오페라(Portland Opera)에서 멋진 공연을 관람해보세요.

숙박: 오리건주 포틀랜드

## 오리건주 포틀랜드 출발, 코어스 베이 도착

4시간/356km

윌라멧 밸리(Willamette Valley)로 잠깐 우회해 훌륭한 피노 누아로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오리건 와인 컨트리(Oregon Wine Country)를 탐방해보세요. 550개가 넘는 와이너리가 운영되는 이곳은 눈부신 태평양 연안으로 가는 길에 잠시 쉬어 가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던디(Dundee)에 있는 레드 힐스 마켓(Red Hills Market)으로 향해 현지 특유의 음식으로 한 끼를 즐겨보세요. 그 다음 길을 건너 아가일 와이너리(Argyle Winery)의 테이스팅 룸으로 향해보세요. 오리건 코스트 하이웨이(Oregon Coastal Highway)를 따라 예스러운 마을과 해변을 구경하며 드라이브를 하다 보면 오리건 코스트 뮤직 페스티벌(Oregon Coast Music Festival)이 열리는 코어스베이에 도착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약하는 뮤지션들이 선보이는 클래식 공연을 관람해보세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잡은 해산물과 아름다운 해변도 즐겨보세요.

숙박: 오리건주 코어스베이

## 오리건주 코어스 베이 출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도착

9시간 54분/1,020km

1960년대 히피 서브컬처의 중심지였던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면 이 도시의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1967년 '사랑의 여름(Summer of Love)' 운동이 열릴 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헤이트-애시버리(Haight-Ashbury)에 운집했습니다. 이제는 유명세를 떨치는 애시버리 스트리트를 방문해 밴드 그레이트풀 데드(Grateful Dead)가 살던 710번지를 찾아보고 부에나 비스타 공원(Buena Vista Park)으로 걸음을 옮겨 화려한 빅토리아 양식의 주택 사이를 거닐어주세요. 1912년 재니스 조플린(Janis Joplin), 롤링 스톤스(Rolling Stones), 프린스(Prince) 등 전설들이 거쳐 간 공연장인 필모어(The Fillmore)에서 이 시대 최고의 스타들을 만나며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느껴보세요. 그 옛날 샌프란시스코의 캔들스틱 공원(Candlestick Park)에서는 비틀즈(Beatles)의 마지막 라이브 공연이, 캐자 스타디움(Kezar Stadium)에서는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린 데이(Green Day), 저니(Journey),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Credence Clearwater Revival)이 처음 음악을 시작했던 이 도시에는 꼭 가봐야 할 음악적 명소가 많으며, 특히 재즈가 유명한 클럽 디럭스(Club Deluxe), 이 지역 인디 음악과 힙합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는 바텀 오브 더 힐(Bottom of the Hill) 및 브로드웨이 공연을 선보이는 파인스타인스 옛 더 닉코(Feinstein's at the Nikko)를 놓치지 마세요.

숙박: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MusicFestNW





로스앤젤레스의 샌타모니카 피어

##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출발, 캘리포니아 해안 도착

●●●●●●●●●● 3시간 50분/373km

샌프란시스코에서 흥미진진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 1번 고속도로를 타고 남쪽으로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몬터레이까지 달려보세요. 9월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재즈 축제 중 하나인 몬터레이 재즈 페스트(**Monterey Jazz Fest**)가 열린답니다. 놀라운 축제가 열리는 동안 머무를 계획을 세워보거나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 모로 베이, 산 시메온(San Simeon) 또는 캄브리아(Cambria) 등 태평양 연안에 자리한 수많은 마을 가운데 한 곳을 골라 하룻밤을 묵어보세요.

숙박: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해안

## 캘리포니아주 캘리포니아 해안 출발, 로스앤젤레스 도착

●●●●●●●●●● 3시간 47분/325km

숨막히게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안을 따라 여정을 이어가며 샌타바버라에 들러 점심을 먹은 후 음악 산업의 허브이자 캐피탈 레코드(**Capitol Records**)와 A&M 레코드(**A&M Records**)가 있는 로스앤젤레스로 가보세요. 가는 길에는 비치 보이즈(Beach Boys)의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딕 데일(Dick Dale)이 연주하는 서프 뮤직의 기타 리프를 들어보세요. 수년 동안 스테이플스 센터(Staples Center)에서 그래미상(Grammy Awards) 시상식을 개최한 로스앤젤레스에는 트루바두르(**Troubadour**), 그리스 극장(**Greek Theatre**) 및 할리우드 볼(**Hollywood Bowl**) 등 훌륭한 공연장이 있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West Hollywood)에 있는 그 유명한 선셋 스트립(**Sunset Strip**)에는 한때 도어즈(The Doors)와 레드 제플린이 무대를 꾸미던 위스키 고고(**Whiskey a Go Go**)가 있어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끊임 없이 찾아옵니다. 바이퍼 룸(**Viper Room**)은 한때 푸시캣 돌스(Pussycat Dolls)가 상주하던 곳입니다. 한편 록시(**Roxy**)는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음악적 커리어를 시작하는 전설의 무대입니다.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봐야 할 여행지이며 여러 날 머물며 다양한 매력에 푹 빠져봐야 할 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수많은 스타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유명인들이 즐겨 찾는 에이스 호텔(**Ace Hotel**), 샤토 마르몽(**Chateau Marmont**) 또는 울프 강 퍽(**Wolf Gang Puck**)이 호텔 벨에어(Hotel Bel-Air)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들려보세요. 유명인들을 마주치게 될지도 모르답니다.

숙박: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출발, 팜스프링스 도착

2시간 8분/172km

태평양 연안을 벗어나 두 시간을 달려스타들의 힐링 장소, 팜스프링스로 가보세요. 유명 음악 축제인 코첼라(Coachella)와 스테이지코치(Stagecoach)가 열리는 엠파이어 폴로 클럽(Empire Polo Club)은 음악 이벤트 장소로 유명합니다. 코첼라는 4월에 시작해 2주 동안 열리는데 모든 장르의 음악을 선보입니다. 역대 출연자로는 콜드플레이(Coldplay), 더 큐어(The Cure), 폴 매카트니 경(Sir Paul McCartney), 캘빈 해리스(Calvin Harris), 건스 앤 로지스(Guns N'Roses), 레이디 가가(Lady Gaga) 등이 있습니다. 역시 4월에 열리는 스테이지코치는 컨트리 음악을 집중적으로 선보이며, 샐리아 트웨인(Shania Twain), 윌리 넬슨(Willie Nelson), 브룩스 앤 던(Brooks and Dunn), 캐리 언더우드(Carrie Underwood)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축제가 열리는 시기에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아구아 칼리엔테 카지노 리조트 스파(Agua Caliente Casino Resort Spa), 퍼플 룸 서퍼 클럽(The Purple Room Supper Club) 및 맥컬럼 극장(McCallum Theatre) 등 팜스프링스에 멋진 라이브 음악 공연장이 많으니 걱정마세요.

숙박: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출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도착

3시간 59분/373km

이제 북쪽으로 4시간을 달려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 라스베이거스에 도착할 차례입니다. 초대형 카지노라고 부를 만한 도시지만, 이 도시는 음악 산업의 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역할을 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하거나 살았던 전설의 이름을 거론하자면,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 소니 앤 셰어(Sonny and Cher), 돌리 파튼(Dolly Parton), 랫 파크(The Rat Park),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 및 리버라체(Liberace) 등이 있습니다. 지금도 셀린 디온(Celine Dion), 더 후(The Who), 엘튼 존(Elton John), 브리트니 스피어스(Britney Spears), 셰어(Cher) 등의 스타들이 살며 시저

스 팰리스(Caesars Palace)의 콜로세움(Colosseum)과 플래닛 할리우드(Planet Hollywood)의 아시스(The AXIS), 몬테카를로(Monte Carlo)의 파크 극장(Park Theater) 등 대표적인 공연장의 무대에 오릅니다. T-모바일 아레나(T-Mobile Arena)와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MGM Grand Garden Arena)를 방문해 순회공연을 하는 아티스트도 만나보세요.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공연장 외에도 라스베이거스의 여러 리조트 또한 세계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제공합니다. 볼거리와 할 거리가 아주 많으니 2박 이상 머물러보세요.

숙박: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r](http://GoUSA.or.kr)을 방문해보세요.